

# 제15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일 시 : 2022.11.25.(금) 07:30

장 소 : 달개비(서울 중구 세종대로19길 16)

참석자 : 이사 8명, 감사 1명

◦ 이 사 :

◦ 감 사 :

주요 내용

[안건 심의]

- [제1안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 원안의결
- [제2안건]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안) : 원안의결
- [제3안건]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수정의결
- [제4안건]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 : 원안의결

회의록 내용

- :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김인희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사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기이사회에는 이사님과 감  
사님 총 아홉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한양대 이사님, 서울대  
이사님, 서울시 행정국장 이사님 세분은 긴급한 회의  
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회 성원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재적이사 열한분 중 여덟분이 참석하여 서울연구원 정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연구원 제15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내년도 서울연구원 사업추진을 위한 2023년도 사업계획(안)과 2023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이 있고, 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과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첫 번째 안건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3년도 사업계획(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6페이지 보면 연구예산은 줄어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자체연구 사업비는 1.9%가 늘었는데, 수탁연구비는 42.5%가 감소하면 연구예산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 수탁은 줄어들게 되지만, 줄어든 부분을 출연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연구 사업비 자체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신3고(高)가 무엇인가요?
-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말합니다.
- : 미·중 갈등 대응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 :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었다면, 내년은 서울시와 베이징시 수교 30주년 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련하여 큰 이슈가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연구주제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담으려고 합니다.
- : 참고로 한 10년 전에는 베세토라고 해서 베이징, 서울, 도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서울이 할 수 있는 도시 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 : 최근에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책 결정이 어려운데 유연하게 정책연구를 해야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연구 등으로 어느 정도 스크린을 거친 다음 판단을 해야되는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 인력 총원이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채용이 잘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이 적절히 대응을 잘해나가야 할 듯합니다.
- : 요즘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도시 인프라

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이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경제사회 쪽 박사급 연구인력이 30명쯤 되고 인프라 쪽이 50여 분 있습니다.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더라도 일단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줘서 외부기관과 함께 협력하며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으려 합니다.

- : 국책연구원별로 아웃소싱 하는 비율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많은 기관이 KDI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질이라는 것이 자체 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존 인력으로 못하는 현안들에 대한 연구는 외부를 활용하게 되는데 KDI는 그 비율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구의 질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 : 종합연구원의 한계가 어떻게 보면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정말 한 명에서 두 명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슈가 생기면 그 인력에 갑자기 일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연구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 : 학-연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와 KIST는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대학교의 교수·대학원생과 연구원 연구진과의 연구 역할을 협업하는데요. 그렇게 협력연구를 하는 방

법도 있습니다.

- : 저는 2023년도 과제 발굴 과정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예년과 조금 다른 점은 미리 정해놓은 숫자가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내년도에 해야하는 과제 개수를 정해놨었는데, 올해는 줄면서 과제 여유가 늘었다고 하는 게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불확실성이 커져서 내년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부분들은 수시연구들로 계속 움직여왔고, 박사님들이 약간 조금 압박은 있겠지만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 : 저희와는 계속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의견 없습니다.
- :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 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두 번째 안건으로,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3년도 수입·지출예산(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건비 편성 기준을 현원 기준으로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의 이 부분은 행안부 지침입니까?
- : 네. 행안부 지침입니다.
- :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현원과 정원의 격차를 줄이는 기조이며, 방법 중 하나로 예비비에 넣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 전체 연구원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제일 크죠? 다른 국책연구원 등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 : 연구원이 보통 인건비가 반이 넘기 때문에 다른 연구원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 : 첫번째 안건 논의 시, 신3고(高)를 말씀하셨지만 내년 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세출 예산이 47조원이라고 하지만, 지하철 등 도시인프라에서 계속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 :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 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세 번째 안건으로,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임원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정도면 법적으로나 실질적인 운영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조문상의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뒤에 '다만' 이라는 표현이 붙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표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 단서 조항에 대해서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져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어떨까 싶습니다.

- : 제12조제1항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 단서 조항은 똑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1항을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사장의 허가를 받거나 외부 강의 등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 :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12조제1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호 영리 업무 겸직으로 인해 원장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2호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 1항에서 1호, 2호 순서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 : 영리 업무라는 걸 빼면 어떨까요? 겸직으로 인해 원장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 : 그러면 이렇게 최종 수정의결하겠습니다.  
1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호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

령에서 허용되는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2호 검직으로 인해 원장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 : 더 이상 의견 없습니까?
- : 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네 번째 안건으로,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부장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23년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 ----- [제안설명]
-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며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저희는 전담인력이 이 일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 : 신규채용입니까? 기존 인력의 겸임발령입니까?

- : 2년 전에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는 기관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는 본부장이 이렇게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 : 안전관리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법적 문제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중대재해 문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편으로 이 부분은 충실하게 이행하되, 우리 연구원 특성에 맞춰서 몇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된 두 분이 아이디어를 내어 연구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연구환경이 이동이 많거나 장비를 이용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연구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무 공간만 잘 관리하면 될 듯합니다.
-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추가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과 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제151회 정기이사회 안건심의와 주요 논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록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함.

2022. . .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감 사